

2023년 1월 22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In that day there will be a highway from Egypt to Assyria. The Assyrians will go to Egypt and the Egyptians to Assyria. The Egyptians and Assyrians will worship together.

In that day Israel will be the third, along with Egypt and Assyria, a blessing on the earth. The LORD Almighty will bless them, saying, “Blessed be Egypt my people, Assyria my handiwork, and Israel my inheritance.”

이사야 Isaiah 19:23-25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선교 대 명령, 곧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증거 하게 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발언 Peter's Words 사도행전 Acts 15:6-12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The apostles and the elders were gathered together to consider this matter.

7. 많은 변론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And after there had been much debate, Peter stood up and said to them, “Brothers! You know that in the early days God made a choice among you, that by my mouth the Gentiles should hear the word of the gospel and believe.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And God, who knows the heart, bore witness to them, by giving them the Holy Spirit just as he did to us.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And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having cleansed their hearts by faith.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Now, therefore, why are you putting God to the test by placing a yoke on the neck of the disciples that neither our fathers nor we have been able to bear?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But we believe that we will be saved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just as they will.”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And all the assembly fell silent, and they listened to Barnabas and Paul as they related what sings and wonders God had done through them among the Gentiles.

시리아 안디옥교회(Church of Antioch)에서 대표자들이 예루살렘회의(Jerusalem Council)에 참석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들 대표자들은 바울(Paul), 바나바(Barnabas), 그리고 몇 형제들(some brothers)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교회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거짓 주장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Peter)가 일어나 증언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이 일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가 옴바(Jobba)에 있을 때였습니다. 옴바는 오늘 텔아비브(Tel Aviv) 해변도시입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모세오경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들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백부장 고넬료(Cornelius)가 보낸 사람들이 옴바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직전에 본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받을 길이 열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초청에 응하여 방문한 가이사랴(Caesarea)에 있는 고넬료(Cornelius)의 집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반부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일과 고넬료(Cornelius)의 집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 한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후파(Hoopa)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백인들의 종교로 여겨지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세속화가 가중되어 백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에!

지난 주일 저녁, 헤롤드 존스 형제가 수술 받고 퇴원할 때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의 아내와 처형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여인들은 토속신앙에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최근 옥외 집회에서 마이크 붙잡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처형은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후파 성경공부에 참여한 그들에게서 복음의 깊은 은혜와 향기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후파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후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젊은 영혼들들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당 안이 젊고 어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희망을 멕시코(Mexico)에서도 발견합니다.

콜롬비아(Colombia)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는 후사 시내에 교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시내 여기저기에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China)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핍박중이지만, 교회는 더욱 더 부흥할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 1966-1976, 10년 143일) 때 세상은 중국의 교회가 말살될 것으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종교사무국이 “종교사무조례” 를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종교탄압을 실시했습니다. 9,800개 교회가 폐쇄되었고, 선교사의 90%가 추방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불법종교 참여금지” 를 발표했습니다. 누구든지 종교모임에 참여하면 불법입니다. 종교모임 장소를 빌려준 자도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비밀리에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자교회 3천만, 지하교회 7천만 등 1억 명 이상의 중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중론입니다(온라인 크리스천투데이, 2022-3-29).

지난 화요일, 중국선교사 이윤진 선교사님께서 이미 5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족들과 동역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관련된 중국의 교회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금문교회는 이윤진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중국선교를 실시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유럽과 미국이요, 한국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교회를 한 번 더 크게 사용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서구의 뒤를 따라 세속화의 물결을 항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신학공부” 와 “말씀에 선 교회부흥” 입니다. 어떤 이벤트(events)로 무슨 분위기에 몰리는 그런 일시적 부흥은 바다 위에 뜬 거품과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린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을 이깁니다.

우리는 또한 “네트워크” (new-work)로 교회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문교회가 여러 교회와 연합하여 후파(Hoopa)선교에 나아가고, 아프리카(Africa)와 중국(China), 남미(South America) 선교에 나아갑니다. 건강한 교회성장은 자기 한 몸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믿음의 공동체 부흥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교회(Jerusalem Church)는 큰 도전을 맞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대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Jesus came and said ti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beserve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마태복음 Matthew 28:18-20

그런데 아직도 일부 교인들은 복음을 육신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시리아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영적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예루살렘 회의(Jerusalem Council)입니다.

이제 베드로(Peter)의 차례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자기를 먼저 부르셨던 욥바(Jobba) 환상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Cornelius) 집안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차별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속했습니다. 한반도가 우리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민족과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오네오 구별하지 말고, 널리널리 전파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역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고독사가 사회문제다. 시골에 교회 없는 데도 있다. 한국부터 선교하라! 일견 맞는 말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In that day there will be a highway from Egypt to Assyria. The Assyrians will go to Egypt and the Egyptians to Assyria. The Egyptians and Assyrians will worship together.

In that day Israel will be the third, along with Egypt and Assyria, a blessing on the earth.

The LORD Almighty will bless them, saying, “Blessed be Egypt my people, Assyria my

handiwork, and Israel my inheritance.“

이사야 Isaiah 19:23-25

앗시리아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God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디모데전서 1 Timothy 2:5

그러나 사역은 인간플랜(human plans)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 (calling)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국내선교를 위하여, 어떤 이는 해외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SF) 지역에 금문교회(Golden Gate Pres Church)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빛을 품은 등대(Lighthouse) 역할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선교(Mission Education)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부르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제까지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더 힘이 있으면 더 잘할 것입니까? 수가 많이 모이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은 권세가 생길 때 교만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대신 물질과 사람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영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갈라디아서 Galatians 3:3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물러서는 이유를 결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나는 지난 주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하관예배 실황을 시청했습니다. 나 스스로 부모님의 장례예배에 참석했고, 여러 성도들의 장례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청이 큰 의미를 준 것은, 주님께서 내게 한 걸음 물러나서 인생을 생각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름 난 사람이든 무명한 자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써 죄 사함 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것이 가장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 받는 일은 말씀대로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모든 상급은 천국의 상급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Peter)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배경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교회가 그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이 강한 자였습니다. 약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중에 세 차례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153마리 물고기 사건을 통해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온 교회와 함께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When they deliver you over, do not be anxious how you are to speak or what you are to say, for what you are to say will be given to you in that hour.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마태복음 Matthew 10:19-20

인간의 면에서 말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예루살렘회의 때 베드로가 인간을 따라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바나바를 동역자로 삼고 제1차 선교여행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모으고 선교보고를 하되 특히 이방인 구원이 큰 주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다같이 기뻐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머물면서 목회하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들이 교회의 파송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와 이방인 구원을 경험한 터였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구니에 담긴 짐승들을 먹으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발언을 하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무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디서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해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호흡입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대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파하게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을 때, 온전히 명령대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